

[화제의 인물]

산업간호, 산업위생, 산업의학 분야를 아우르며
이상적인 산업보건 활동을 실현하는 근로감독관



오 숙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의 자세는 건강한 근로자를 통한 산업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11년의 산업간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산업보건근로감독관이 되어 산업보건근로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숙 근로감독관의 말이다.

오숙 근로감독관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근로감독관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산업보건 경력 못지않게 산업보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간호대학 졸업 후 산업보건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과 중소기업사업장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하면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활동 뿐 아니라,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분야까지 확대된 산업간호사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보건학에 입문하

여 수학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대행의 경력으로 자신감 있게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는 보건관리자로 포괄적인 산업보건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장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갈등과 권한의 한계에 종종 부딪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이상적인 보건관리 실현을 꿈꾸며 근로감독관이 되고자 다짐하였다. 2005년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산업보건분야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직 근로감독관을 특별 채용하였고, 끊임없이 준비해온 오숙 근로감독관이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오숙 근로감독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다른 대규모사업장과 똑같이 단속하고 처벌할 때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소신껏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말한다. 그러나 환기설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일하는 근로현장을 보고 전체 작업을 중지시키고,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사업주의 항의까지 받으면서도 깨끗하게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작업환경시설개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마침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작업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근로자들을 보았을 때 정말 가슴 뭉클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오숙 근로감독관의 산업보건에 대한 열정과 근로자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산업보건전문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오숙 근로감독관은 산업보건은 산업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간호사로서 직업병예방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증진활동, 작업환경개선 등의 산업보건업무를 하다보면 사업장의 생산량, 직원들의 성향, 최고책임자의 산업보건의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관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건관리자도 조직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장 상황에 맞추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 여유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산업간호활동이 사업장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한다고 한다. 또한 산업간호사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서 산업간호, 산업위생, 산업의학을 포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요구와 기대

에 어긋나지 않도록 폭넓은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산업보건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오숙 근로감독관은 7년간 사업장보건관리자 경험 속에서, 사업장보건관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업장 동료들과 어려움을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일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이해한다며 혼자서 아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산업간호사들과 자리를 만들고 업무를 공유하면서 목소리를 키워야한다고 조언한다. 많은 업무로 힘들더라도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재해예방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활동을 보여줌으로서 정부기관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삶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오숙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점검에서는 건강한 일터를 위하여 푹 부러지는 산업보건전문 근로감독관 모습이지만, 첫아이 유치원 예술제에서 무대에서 울동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낀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과 세계여행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라고 할 만큼 두 아이의 따뜻한 엄마이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으로의 길을 권유하고 응원해준 남편에 대하여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보면서 감상에 젖을 줄 아는 사랑스런 아내이다.

“산업간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 되돌아보며 고민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지막 한마디로 산업간호사들의 가슴에 불끈 힘이 솟아오르게 하는 오숙 근로감독관은 산업간호사들의 영원한 희망이고 꿈이다. 실제로 사업장 산업보건 점검에 앞서 사업장 최고 책임자 및 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어 지역보건관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국내 유일한 산업간호인 산업보건 전문 근로감독관으로서 충실한 역할과 활발한 활동으로 산업간호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